

현안과 과제

- 2022년 북한경제 평가 및 2023년 전망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중심으로-

목 차

■ 2022년 북한경제 평가 및 2023년 전망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중심으로-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2022년 북한경제 현황 평가	2
3.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본 북한의 경제 부문 목표	9
4. 2023년 북한경제 전망과 과제	12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경제센터 : 이해정 연구위원 (02-2072-6226, hjlee@hri.co.kr)
강성현 선임연구원 (02-2072-6221, shkang@hri.co.kr)

Executive Summary

□ 2022년 북한경제 평가 및 2023년 전망

■ 개 요

북한은 2022년 12월 26부터 3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2022년 북한경제와 금번 전원회의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 북한경제를 전망하고자 한다.

■ 2022년 북한경제 현황 평가

2022년 북한은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라는 3중고(重苦)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북한은 고강도 대북제재와 국경봉쇄 장기화로 인해 외부자원 투입이 어려워, 자력갱생 및 과학 기술발전 강조 기조 속에서 국산화 및 재자원화 정책 등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2022년 5월 코로나19의 내부 확산으로 국정 운영 방향이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민생과 직결된 농업과 경공업 부문을 ‘급선무’ 과제로 제시하게 되었다. 결국, 2022년은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문과 일부 지방공업 중심의 성과를 제외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본 북한의 경제 부문 목표

북한은 2023년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3차년도로서 “조국해방전쟁(한국전쟁) 승리 70돌, 공화국 창건 75돌을 기념하는 중요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 2023년 경제 부문의 주요 목표는 “전반적인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 것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달성해야 할 경제지표들과 12개 중요고지들을 기본 목표로 설정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주택)

건설 사업 방향에 대해서만 구체적 사업 계획들을 열거(평양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건설 및 신규 3,700대 세대 거리 조성 등)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중시·과학기술선행의 원칙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애국운동 및 대중운동을 활발히 펼쳐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 2023년도 경제 부문 사업 방향(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

구분	주요 내용		
방향	- 생산장성과 정비보강전략 수행,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관건적 목표들의 달성 - 각 부문별 목표 경제지표 및 12개 중요고지(목표) 설정		
부문별 주요 내용	기간공업부문	- 목표 및 사업방향 미공개(미언급)	
	인민 생활 부문	건설	-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건설 3차년도 사업 추진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및 신규 3,700세대 거리 조성) - 농촌건설 활성화
		농업	- 구체적 목표 및 사업방향 미공개 (“철저히 중시해야 할 과업과 방도의 구체화”만 언급)
		경공업	- 사업원칙 강조 :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사업체계와 방법 모색 및 무조건적인 실행
		지방공업	
		편의봉사	
		수산	
도시경영			

자료 : 「로동신문」(2023.1.1.)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2023년 북한경제 전망과 과제

2023년 북한경제는 인민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여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상황이 악화할수록 자력갱생 기조는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제재의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자력갱생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북한경제의 회복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 중 하나는 북중무역인데, 중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북중 간 육로 무역이 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향후 남북협력은 북한의 인민생활향상 문제에 대한 고민과 수요를 고려하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초기 조치인 ‘민생개선 시범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 상황을 고려하여 남한의 주요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교류협력 추진 계획과 북한의 지방경제발전 정책, 남북간 기존 협력 경험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자연환경, 주요 인적 자원 등을 고려한 효과적 협력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개요¹⁾

○ 북한은 2022년 12월 26~31일 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

- 북한은 2020년 이후 김정은 北 노동당 총비서의 육성 신년사를 발표하는 대신, 당 중앙위 전원회의의 보도문으로 대체해 당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²⁾
 - 김 총비서 집권 이후 2013~2019년간은 육성 신년사를 송출했으나, 2020년부터는 연말 전원회의 개최 결과를 차년도 1월 1일에 보도하는 것으로 대체³⁾
 - 북한 당국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국내외에 북한이 개인이 아닌 집단(당)에 의해 정책 결정이 이뤄진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으로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부터 김 총비서의 책임이 일부 자유로워지거나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되고 있음
- 금년 전원회의의 결과 보도는 국방력 강화 및 대남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경제 부문에 대해서 비중을 축소
 - 올해 결과 보도는 ‘정면돌파전’을 천명한 2020년과 기조가 유사하나, 그 내용의 표현이 보다 공격적이고, 미국보다는 남한에 대한 비난 강도가 높아졌음
 - 경제부문에 대한 언급은 비중이 크지 않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는데, 국방·대외부문에 대해 방점을 두기 위한 ‘톤 다운(Tone down)’일 가능성도 존재
 - 특히, 1월 중 최고인민회의(남한의 정기국회에 해당)가 예정되어 있어, 해당 회의에서 경제문제가 보다 자세하게 다뤄질 수도 있음
 - 실제로 과시할만한 2022년도 경제 성과가 부족하고, 금년도에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방증하는 것일 가능성도 존재

○ 본 보고서는 2022년 북한경제와 금번 전원회의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 북한경제를 전망하고자 함

1) 본고는 이해정, “북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전망: 경제·사회,” 『2023년 북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정세 전망』, 이화여대대학교 통일학연구원·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공동주최 토론회, pp. 11~18를 수정·보완한 것임.

2) 신년사는 전년도에 대한 평가와 당해연도 국정운영 방향(대내·대남·대외 정책 등)이 담기는데, 기존 김일성 시대에는 ‘육성 신년사’로, 김정일 시대에는 ‘(당보·군보·청년보) 신년공동사설’ 형식을 취해 왔으며, 김정은 시대 들어 다시 ‘육성 신년사’로 돌아간 바 있음.

3) 최근 연말 전원회의의 결정서가 기존 신년사를 대체하는 것은 김 총비서 개인의 명목이 아닌 노동당의 명목으로 수일간의 토론을 거쳐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시대와는 차별성을 가짐.

2. 2022년 북한경제 현황 평가

○ (경제 전반)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라는 3중고(重苦)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북한경제는 고강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작동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역(逆)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경제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

·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019년만 제외하고 모두 역성장하였음

※ 2017년 -3.5%, 2018년 -4.1%, 2019년 0.4%, 2020년 -4.5%, 2021년 -0.1%.

· 산업별로는 광업과 중화학공업의 역성장세가 뚜렷하며, 농림어업, 경공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정부서비스업이 성장세를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옴

· 산업구조는 2021년 기준 정부 서비스업(26.0%), 농림어업(23.8%)이 전체의 50%에 육박하고, 중화학공업(12.1%), 건설업(10.2%), 광업(10.0%), 경공업(6.2%) 등이 뒤를 이음

※ 2017년~2021년 간 산업 비중은 정부 서비스업(23.2%→26.0%), 농림어업(22.8%→23.8%), 건설업(8.6%→10.2%) 등이 상승하고, 광업(11.7%→10.0%), 중화학공업(13.3%→12.1%), 경공업(6.8%→6.2%) 등이 하락하였음.

<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추이 >

산업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국내총생산	-3.5	-4.1	0.4	-4.5	-0.1
농림어업	-1.3	-1.8	1.4	-7.6	6.2
광업	-11.0	-17.8	-0.7	-9.6	-11.7
경공업	0.1	-2.6	1.0	-7.5	-2.6
중화학공업	-10.4	-12.4	-2.3	-1.6	-3.7
전기·가스·수도업	-2.9	5.7	-4.2	1.6	6.0
건설업	-4.4	-4.4	2.9	1.3	1.8
정부서비스업	0.8	0.8	0.5	0.8	0.1
기타서비스업	-0.3	1.2	1.8	-18.0	-2.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12월 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편을 이룩하자”고 주문한 바 있음
- 북한 당국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자인하고, 2025년까지 추진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
- ‘5개년 계획’은 기본적으로 ‘정비·보강 전략’으로 정의되었으며, 기존의 경제정책 및 기조를 이어 나가면서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악화된 대외환경을 고려한 수세적인 경제발전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 ※ 김 총비서는 2022년 9월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2025년 말에 가서 2020년 수준보다 국내총생산액은 1.4배 이상, 인민소비품생산은 1.3배 이상 장성(성장)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⁴⁾
- ※ 이는 북한이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액을 2020년 대비 40% 증가시키려면 매년 7%씩 성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 ‘5개년 계획’ 2년차인 2022년은 기간공업 부문(금속, 화학, 전력, 석탄, 철도, 기계), 식의주 부문(농업, 건설, 경공업, 수산) 등의 순으로 정책 방향을 대략 제시

< 2022년도 경제 부문 사업 방향(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

구분	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2022년도 경제부문 사업방향		
방향	- 현행생산 활성화 및 정비보강사업 역점 추진, 안정적이고 향상된 인민 생활 제공		
부 문 별 주 요 내 용	기간 공업 부문	금속	- ‘우리 식 철생산방법’ 발전, 철강재 생산능력 확대 및 현대화
		화학	- 중요공장 활성화, 경공업 및 제약공업원료 증산
		전력	- 전력수요 보장, 전력 손실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 능력 확대
		석탄	- 고속도굴진운동 활성화, 선진 채탄방식 및 기계수단 도입
		철도	- 철도 안정성 제고 및 현대화, 국가의 통일적 지휘체계 확립
		기계	- 료전기계, 전기기계, 건설기계 생산 확대 및 질 제고
	식의주 부문	농업	- 전당·전국가적 역량 집중 및 지원, 밀·보리 재배면적 확대
		건설	- 평양 1만세대 살림집건설 및 지방 변혁 도모
		경공업	- 인민소비품생산 활성화, 과학적 식료가공기술 발전 도모
		수산	- 양어·양식 등 실속있는 수산자원 증식 사업 추진

자료 : 「로동신문」(2022.1.1.)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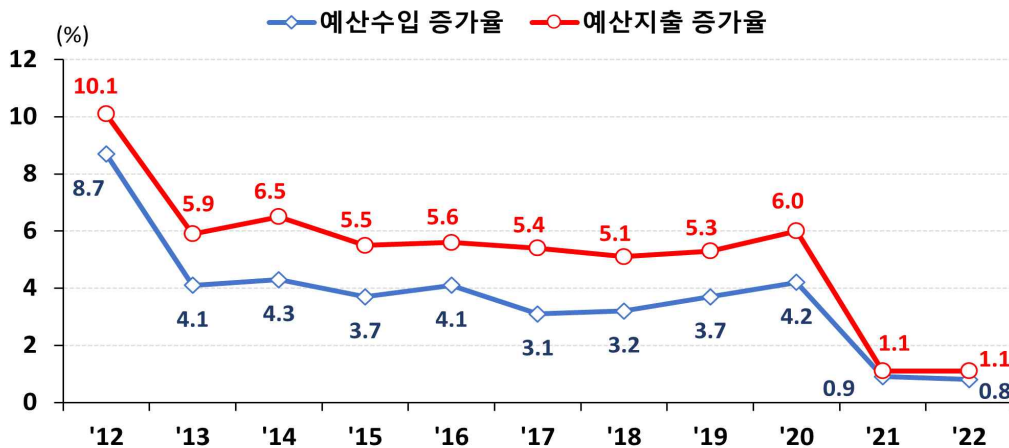
4)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2022년 9월 8일자.

- 다만, 김 총비서의 주문은 고강도 대북제재와 국경봉쇄 장기화로 인해 외부자원 투입이 어려워, 자력갱생 및 과학기술발전 강조 기조 속에서 국산화 및 재자원화 정책 등이 전개되는 모습
 - 산업기반이 낙후한 기간공업 부문은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외부로부터 수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대북제재와 국경봉쇄로 막힌 상황
 - 이에 따라 외부자원 의존도가 낮거나, 대체기술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농업, 경공업, 건설업(건설자재 포함)을 중심으로 국산화나 재자원화가 이루어지거나, 해당 부문에 인력 및 자재 등이 집중되는 모양새
 - 또한, 지방 단위의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2021년 「시군발전법」의 도입, 지역 단위별 경쟁 유도를 통한 성과 도출 독려 등 지방경제 활성화 및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
- 그마저도, 2022년 5월 중순 코로나19 확진자가 등장, 빠르게 확산되고, 국정운영 방향이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었을 것으로 보임
 - 북한 당국은 5월 12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였으며, 이날을 기점으로 북한 당국은 최대비상방역체계에 돌입하여 ‘모든 시·군을 봉쇄하고, 사업단위·생산단위·생활단위별로 격폐한 상태에서 사업과 생산활동을 진행하라’고 주문하였음
 - 이와 같은 사실상의 봉쇄령은 동년 8월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정상방역체계로 전환하는 3개월여 간 이어짐
- 이에 북한 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 중이었던 2022년 6월 당 중앙위 제8기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민생과 직결된 농업과 경공업 부문을 ‘급선무’ 과제로 제시
 - 2022년 2~3분기 이뤄진 고강도 봉쇄정책에 따라 시장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됨
 - ※ 데일리NK에 따르면 4월 중순 평양의 쌀값은 1Kg 당 5,120원에서 7월 말 6,280원으로 상승, 달러 환율은 동 기간 1달러 당 6,400원에서 8,150원으로 올랐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농업 및 소비품 생산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8월 10일 91일 만에 정상방역체계로 빠르게 전환하여 고강도 방역정책에 따른 불만을 잠재우려 한 것으로 보임
- 결국 2022년은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문과 일부 지방공업 중심(경공업 부문)의 성과를 제외하고는 여타 경제 부문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재정) 2022년 예산수입 증가율은 0.8%, 예산지출 증가율은 1.1%로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 북한의 예산수입 및 예산지출 증가율은 2021년을 기점으로 크게 하락하며 전반적인 재정 여력이 위축된 것으로 판단됨
 - 김정은 총비서 집권기 예산수입 증가율은 대체로 3~4%대, 예산지출 증가율은 5~6%대를 유지했으나, 2021년 이후 모두 약 1%대로 크게 하락
 - 특히, 경제건설에 대한 투자(지출계획) 증가율도 2021년 0.6%, 2022년 2.0%로 이전 시기에 5~6%씩 늘려온 것에 비하면 감소폭이 큼
- 이와 같은 재정 여력의 위축으로 지방정부 간 경쟁을 고취시켜 지방의 시, 군이 자체적으로 자기 지역을 발전시켜나갈 것을 주문하는 모습도 포착
 - 김정은 총비서가 2021년 ‘시·군당책임비서강습회’에서 ‘당사업의 혁신’을 주문한 이후 북한 당국과 언론매체는 시·군 간 경쟁이 지역 발전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경쟁을 유도
 - 2021년 9월 제정된 「시군발전법」 에도 ‘모범군칭호쟁취운동’ 등을 벌릴 것을 명시하며 시·군 간 경쟁을 정책 추진 동력으로 삼겠다는 북한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 (‘모범지방공업군’, ‘지방예산제모범군’, ‘국토환경보호모범군’, ‘모범산림군’, ‘모범교육군’, ‘모범보건군’ 등)

< 김정은 시기 북한의 예산수입 및 예산지출 증가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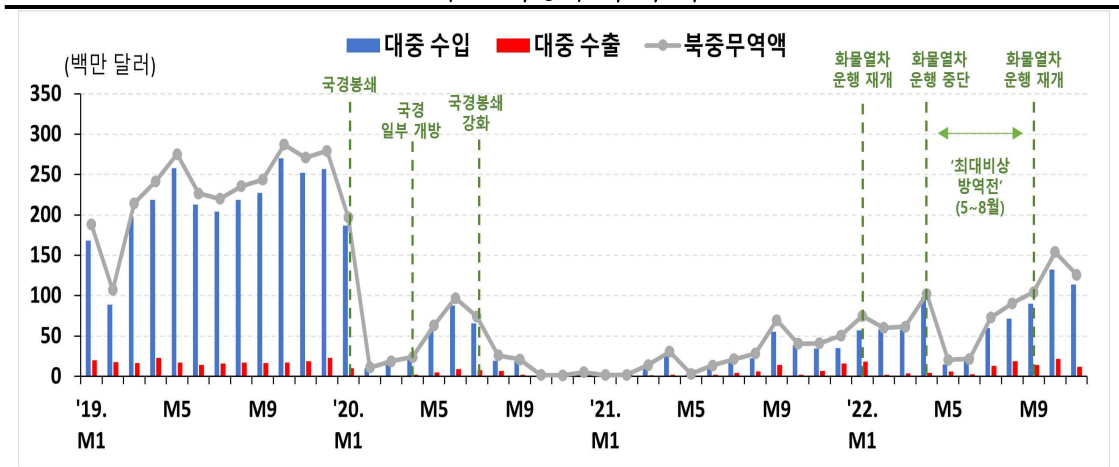


자료 : 「로동신문」; 이종규, “북한의 재정 추이와 주요 이슈,”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4월호, p. 10 및 p. 15; 양문수, “2022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3년 전망,” 『한반도 경제: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 p. 54 재인용.

○ (방역과 무역)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북중무역은 약 8.9억 달러를 기록하여,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 무역량의 1/3수준을 회복

- 북한의 대외무역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중무역액은 2019년 30.9억 달러에서 2020년 7.6억 달러, 2021년 6.8억 달러로 크게 감소
 - 북중무역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월 2~3억 달러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20년 1월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로 인해 동년 11월 약 1,200만 달러 수준까지 급감
- 북중무역은 2022년 8월 ‘최대비상방역전’ 승리 선포 이후 3개월 연속 1억 달러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지속
 - 북중무역은 2021년 6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2022년 1월 북한 신의주-중국 단둥(丹東) 간 육로 화물열차 운행이 17개월만에 재개(2020년 8월 중단)되면서 보다 활성화
 - 2022년 4월, 27개월 만에 월 1억 달러 선을 회복하였으나 2022년 5월 북한이 최대비상방역체계에 돌입하면서 5~6월 무역액이 크게 감소
 - 다만, 동년 9월 말부터 신의주-단주간 북중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됨에 따라 9월 이후 3개월 연속 1억 달러 규모를 유지 중
 - 한편, 북러간 철도 운행도 2020년 2월 중단되었으나 2022년 11월 초부터 운행이 재개된 것으로 전해짐⁵⁾

< 최근 북중무역 추이 >



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및 언론자료 등을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5) 연합뉴스TV. “북·러 철도화물 운송 약 3년 만에 재개” 2022년 11월 3일자.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21103000400640>> (검색일: 2022.12.22.)

○ (먹는 문제: 농업)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동원의 어려움, 봄 가뭄 등 기상 악화 요인으로 인해 2022년 작황이 예년 수준을 밑돌았을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은 전년 대비 18만 톤(3.8%) 감소한 451만 톤으로 추정(농촌진흥청, 22.12.15)

· 주된 감소 요인은 코로나19와 봄 가뭄, 여름 홍수, 가을 장마 등 작물생육기간(5~9월)의 농업 기상조건이 불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다만, 2022년은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의 첫 해로 군수공업 부문의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황해남도 지역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등 농업 부문 성과 달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킨 효과는 일정 정도 나타난 것으로 보임

※ 2022년 9월 말, 군수공업부문은 황해남도에 새로 제작한 5,500대 규모의 농기계(이동식 벼종합탈곡기, 소형 벼수확기, 종합토양관리기계 등)을 지원하였음.

<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 및 소요량 추이(2012~22년) >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생산량	농진청	467	480	480	451	482	470	455	461	440	469	451
	FAO	513	521	526	477	478	452	397	529	489	-	-
소요량		573	575	578	581	584	586	589	592	595	597	-
부족량	농진청 기준	106	95	98	130	102	116	134	131	155	128	-
	FAO 기준	60	54	52	104	106	134	192	63	106	-	-

자료 : 농촌진흥청, FAOSTAT; 김영훈, “2022년 북한 식량·농업 동향과 전망,” 『2022년 북한경제연구자 대토론회』, 통일부·KDI, p. 9에서 일부 수정하여 재인용.

○ (입는 문제: 경공업) 지방공업 발전을 위한 공장 건설에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으며, 섬유류의 수입이 증가해 인민소비품 중심 경공업 부문의 생산이 다소 개선되었을 가능성

- 2021년 「시군발전법」의 제정, 지역단위별 경쟁 유도를 통한 성과 도출 독려 등 지방경제 활성화 및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

· 2021년 6월 UN에 제출한 자발적국별리뷰(VNR)에서 목표 10번 ‘국가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 보장’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6)

- 최근 북한은 농업과 경공업 부문의 현대화, 과학화 등 혁신 정책을 펼치면서 민간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입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 특산의 질 높은 제품들을 개발·생산하도록 요구하는 등 ‘지방경제의 브랜드화’ 도모
 - 특히, 김화군 등 각 지역에 ‘지방공업발전 본보기공장’을 건설한 성과를 토대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음
 - 2022년 6월 강원도 철원군과 인접한 접경지역인 북 강원도 김화군에 식료품 공장, 옷공장, 일용품공장, 종이공장 등 지방공업공장을 개건·현대화⁷⁾하고, 이 지역을 지방공업발전의 본보기 군으로 삼았음
 - 한편, 2022년 1~11월 간 북한의 대중국 섬유류 수입(HS Code 50~60류)은 전년동기 대비 6.4배 증가한 약 9,957만 달러를 기록
 - 단순히 내수용으로 수입이 이뤄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국 의류제품 수출은 전무
 - 2021년 연말 김정은 총비서의 학생 교복과 학용품 보장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적인 중대조치’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 (잇는 문제: 건설)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건설 부문에서 가장 활발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건설을 목표로 송신·송화지구 1만 세대 착공 1년여 만에 준공(4.12), 화성지구 1만 세대 건설,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국 각도에서 농촌살림집 건설, 함경남도 연포남새온실농장 준공(10.11) 등에서 성과
 - 어랑천 3호발전소 완공(8.5)으로 공사 시작 41년만에 총 계획도상 모든 시설 공사를 마무리
 - 한편으로는 지방건설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월 「시군건설세멘트보장법」을 제정하여 시, 군의 자립적인 지방건설과 농촌문화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강조하고 지방건재공장의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독려

6)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repared by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6, p.35.

7) 「로동신문」, “지방공업의 새로운 도약, 본보기적실체: 개건현대화된 김화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진행,” 2022년 6월 23일자.

3.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본 북한의 경제 부문 목표

- (2022년 평가) “전대미문의 온갖 도전과 위협들이 가득했던 2022년”, “시련에 찬 2022년” 등의 표현을 통해 경제 부문을 포함한 제반 상황이 어려웠음을 간접적으로 표현
 - 경제건설과 관련하여 “2022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이였고 분명코 우리는 전진하였다”며 “당과 국가의 제반 사업에서 이룩된 확실한 성과들은 혹독한 국난을 억척같이 감내해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발휘 해준 위대한 우리 인민만이 전취할수 있는 값비싼 승리”로 평가
- (경제부문의 성과)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푸는 데 대해 주(住)와 관련한 건설 부문을 언급
 - 건설 :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주변 일대 화성지구와 함경남도 연포지구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하면서 시군 단위 농촌 살림집 건설 역시 뚜렷한 성과로 언급
 - “가장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운 화성지구와 연포지구건설에서 2022년의 투쟁을 상징하는 훌륭한 성과들이 창조되고 경제장성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이 준공”
 -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인 시발을 떴고 전국의 시, 군들에 농촌발전의 새시대를 대표하는 본보기살림집들이 일떠섰으며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국가적인 위기대응능력과 나라의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적극 전개”
- (2023년에 대한 인식)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 실현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세번째 해의 과업을 수행하며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공화국 창건 75돐을 기념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로 인식
 - “생산장성과 정비보강 전략수행, 인민생활개선에서 관건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해”로 규정

○ (2023년 경제부문 주요 목표) “전반적 부문과 단위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 것을 경제사업의 중심 과업”으로 제시

- 다시 한 번 1960년대, 70년대의 투쟁정신과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난국을 타개해나갈 것을 강조
 - “아직까지도 남의 기술에 대한 의존을 털어버리지 않고 자력의 원칙을 흥정하려 드는 낡은 사상”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객관적환경에 빙자하면서 우리 사업을 방해하고있는 온갖 그릇된 사상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할 것을 독려
-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달성하여야 할 경제지표들과 12개 중요고지들을 기본 과녁으로 정하고 그 점령방도들을 제시, 다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2023년의 계획수행이 경제발전의 중장기전략수행에로 이어지게 하는데 작전과 지도의 중심을 둘데 대하여 강조
 -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등 기간공업과 건설, 농업, 경공업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2023년도에 달성하여야 할 중점 목표들이 제시⁸⁾
- (짓는 문제: 건설)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 정책과제로 제시
 -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세번째 해에 수도건설을 보다 통 크게 벌려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건설과 함께 새로운 3,700세대 거리를 하나 더 형성 할 것임을 밝힘
 - 2022년에 축적된 경험에 토대하여 농촌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
- (먹는 문제: 농업)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것을 우리 당이 제일 중시하고 품들여 추진하고있는 정책적과업으로 제기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 철저히 중시해야 할 과업들과 방도들을 구체화

8)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소집,” 2022년 12월 27일자.

- (입는 문제: 경공업) 경공업과 지방공업, 편의봉사, 수산,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직결된 부문들에서는 당과 국가의 시책이 인민들에게 정확히 가닿을수 있게 현실성있고 합리적인 사업체계와 방법을 모색하고 무조건 실행
 ※ 2022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인위원회 상무회의를 통해 편의봉사법 등을 개정.
- (과학기술 중시)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견인기적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당의 과학기술중시, 과학기술선행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할데 대하여 언급
 -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혁신방향이 명시
- (교육, 보건, 애국운동·대중운동 강조) 교육, 보건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문화건설의 각 방면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들을 확대해 나갈 것을 독려
 - 국가부흥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하고 옹기 이끌데 대해 지적

< 2023년도 경제 부문 사업 방향(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

구분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2023년도 경제부문 사업방향		
방향	- 생산장성과 정비보강전략 수행, 인민생활개선을 위한 관건적 목표들의 달성 - 각 부문별 목표 경제지표 및 12개 중요고지(목표) 설정(구체적 내용 미공개)		
부 문 별 주 요 내 용	기간공업부문	- 목표 및 사업방향 미공개(미언급)	
	인민 생활 부문	건설	-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 3차년도 사업 추진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및 신규 3,700세대 거리 조성) - 농촌건설 활성화
		농업	- 구체적 목표 및 사업방향 미공개 (“철저히 중시해야 할 과업과 방도의 구체화”만 언급)
		경공업	- 사업원칙 강조 :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사업체계와 방법 모색 및 무조건적인 실행
		지방공업	
		편의봉사	
		수산	
도시경영			

자료 : 「로동신문」(2023.1.1.)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4. 2023년 북한경제 전망과 과제

1) 2023년 북한경제 전망

○ **인민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여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상황이 악화할수록 자력갱생 기조는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제재의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농업생산력 제고를 바탕으로 한 ‘인민대중제일주의’ 실현과 주민생활의 실질적 향상, 자력갱생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김정은 시기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 중시와 국산화, 재자원화, 지방경제 활성화 역시 자력갱생 기조하에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모범군청호쟁취운동’ 등을 통한 지역 간 경쟁 독려 등 개별 경제 주체들의 역할 강조는 지속될 전망
- 지방공업을 중심으로 경공업 부문이 다소 나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19 상황과 북중 인적 교류 재개 상황에 따라 관광이 재개될 경우 서비스업 부문도 개선될 가능성은 남아있음

○ **2023년 북한경제의 회복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 중 하나는 북중무역의 확대 수준임**

- 향후 북중무역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북한 당국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에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 존재
 - 최근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완화하면서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20년 이후 북한 당국의 육로 통행 준비 과정에서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경험에 비춰보면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존재
 - 다만, 2022년 9월부터 북중 접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여 ‘위드 코로나’ 정책 추진 가능성도 제기⁹⁾
 - 한편, 2022년 11월 운행을 재개한 북-러 철도 화물운송을 계기로 對러시아 무역 활성화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9) 연합뉴스, “북한도 대규모 백신접종 돌입…국경 열고 '위드 코로나'로 가나”(2022.9.28.),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8149900504>> (검색일: 2022.12.29.)

- 북중무역이 확대될 경우 북한경제 회복에 일정 정도 도움은 될 것으로 보이나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를 계기로 획기적인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남북협력 과제

○ 북한의 인민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고민과 수요를 고려하여 정부의 담대한 구상 초기 조치인 ‘민생개선 시범 사업’을 구체화할 필요

- 현재의 대북제재 국면과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정도로 담대한 남북협력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함
 - 특히, 초기 조치로 제안하는 사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수요를 고려하여 북한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 남북관계 개선 시, 정부의 그린데탕트 정책과 발맞춰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가능한 다양한 협력 주체들의 접촉 기회 확산을 고민할 필요

- 남한의 주요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교류협력 추진 계획과 북한의 지방경제발전 정책, 남북간 기존 협력 경험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자연환경, 주요 인적 자원 등을 고려한 효과적 협력 과제를 모색할 필요
 - 남북간 교류협력 경험을 보유한 남측의 경기도와 북측의 개성, 남측 강원도와 북측 강원도 지역 간 단계적 협력 과제를 고민
 - 개성의 개풍양묘장 주요 양묘장 현대화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협력 추진
 - 금강산 내 영농장(금천리, 온정리, 삼일포 등), 양돈장(금천리, 삼일포, 성북리 등), 양묘장 등에서 자원순환형 농축산 현대화 사업 및 스마트팜 조성 시범 사업을 우선 추진
 - 강원도의 남북공동 연어 치어 방류 사업(2001년 4월~2005년 4월 간 5차에 걸쳐 연어 치어 205만 마리 공동 방류), 연어부화장 건설(2003년 12월 안변연어부화장 건설), 사료공장 건설(2005년 9월 북 강원도 안변군에 건설) 등의 협력 경험 등도 활용¹⁰⁾
- ※ 윤석열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은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 협력을 추진하고,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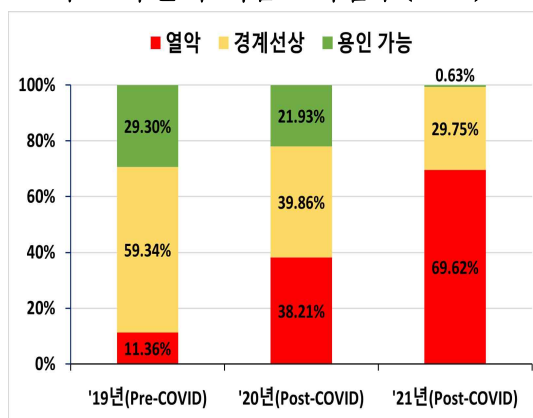
HRI

10) 최용호 외, 『평화경제 구현 남북농림수산협력 모델 개발 및 실행전략 연구』, (서울: 대통령직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2020), p.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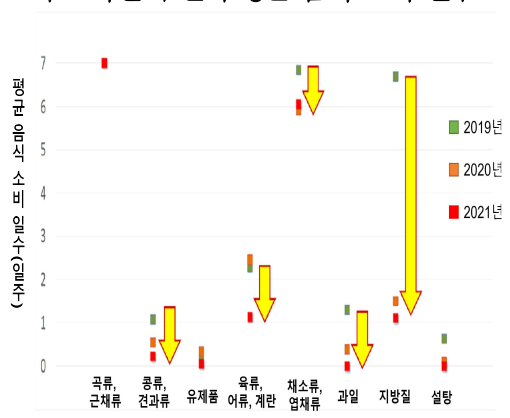
<참고>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 봉쇄 조치로 민생경제에 직접적 타격

- 대중 공식무역과 밀무역이 동시에 차단되고 수송수단이 차단되면서 시장 및 사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에 따른 국경 봉쇄는 정유 제품 밀수, 석탄 수출, 조업권 판매 등 불법 해상 활동도 크게 위축¹¹⁾
- 한편, 북한의 국경봉쇄 장기화는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를 악화시켜 인구·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존재
 - 2020년 국경봉쇄 이전까지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2000년대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 2017년 UNICEF MICS에 따르면 5세 미만 어린이 영양 상태는 만성 영양부족 19.1%, 저체중 9.3%, 급성 영양부족 2.5%로, 저소득 국가 중에서도 양호한 수준.
 - 그러나 2020년 이후 북한 주민의 식생활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임. 2021년 WFP의 북한 식품소비점수(FCS)는 2019년에 비해 크게 낮아져 용인 가능한 수준의 식품을 소비를 하는 계층은 0.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최근 북한 주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다양성이 크게 축소되어 콩, 육류, 어류, 계란, 과일, 채소, 지방질 섭취가 현저하게 감소
 - 이러한 불균형한 영양소 섭취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발달 장애나 지적 능력 및 체력 저하 등 인구·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북한의 식품소비점수(FCS) > < 최근 북한 주민의 평균 음식 소비 일수 >



자료: WFP. Household Food Security in the DPRK, 2021.9, p. 6.



자료: WFP. Household Food Security in the DPRK, 2021.9, p. 8.

참고 문헌

- 김영훈(2022). “2022년 북한 식량·농업 동향과 전망,” 『2022년 북한경제연구자 대토론회』, 통일부·KDI.
- 양문수(2022). “2022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3년 전망.” 『한반도 정세: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이종규(2022). “북한의 재정 추이와 주요 이슈.”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4월호. 한국개발연구원.
- 최용호 외(2020). 『평화경제 구현 남북농림수산업 협력 모델 개발 및 실행전략 연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22.3. Annual Report by Panel of Experts(S/2022/132).
- WFP. 2021.9. Household Food Security in the DPRK.
- 연합뉴스. “북한도 대규모 백신접종 돌입…국경 열고 '위드 코로나'로 가나” (2022.9.28.).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8149900504>> (검색일: 2022.12.29.).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2022년 1월 1일자.
- _____.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2022년 1월 1일자.
- _____. “지방공업의 새로운 도약, 본보기적실체: 개건현대화된 김화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진행.” 2022년 6월 23일자.
-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시정연설.” 2022년 9월 8일자.
- _____.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소집.” 2022년 12월 27일자.
- _____.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23년 1월 1일자.
-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02호 무산수출가공구를 내용에 대하여.” 2021년 4월 24일자.
-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http://www.customs.gov.cn/customs/syx/index.html>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11)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22, *Annual Report by Panel of Experts*, 1 March.